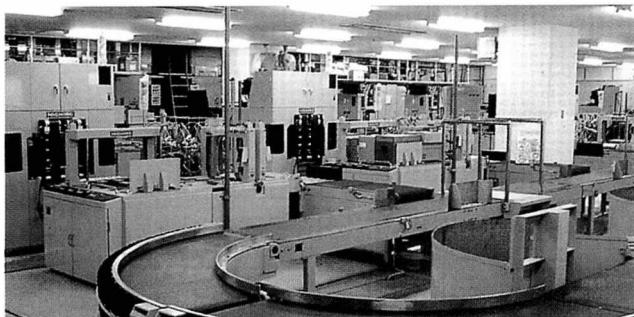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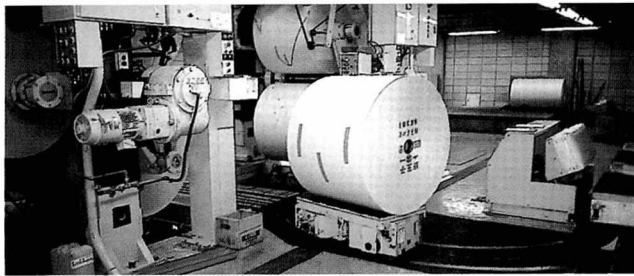


SW에서부터 CTP-윤전기까지

토털 인쇄솔루션 공급으로 2004년을 연다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의 이준우 대표는 인쇄업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만족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준우 대표는 정작 자신이 전공한 전자공학보다 영업 파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마침 컴퓨터 엔지니어이면서도 영업 파트에 관심이 많던 이 대표를 찾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컴퓨터 엔지니어이면서도 영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회사로 프리프레스 장비를 공급하던 EAC GRAPHICS였다.



EAC GRAPHICS와 한국하이텔베르그사에서 충무로 일대 프리프레스 영업과 신문사용 인쇄기 영업을 담당하던 이 대표는 2000년을 기해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

독립 첫해인 2000년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를 설립한 이 대표는 1996년부터 축적한 신문사 영업 노하우를 이용, 6개월만에 8개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녹녹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아울러 올 2월에는 에스코그래픽스사로부터 2002년의 판매 실적을 인정받아 "BEST DEALER 2002" 상을 수상했다.

종합 인쇄솔루션 공급 회사를 향해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주)로서는 2003년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기록 될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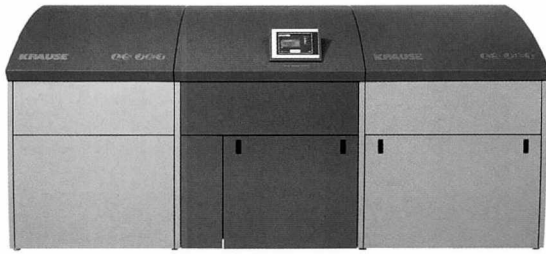
우선은 지난 8월에 세계 신문사용 CTP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 크라우제사와 CTP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본의 Seiken Graphics사와는 윤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퀵의 국내 딜러인 인큐브테크와 충무로 지역에 PC Quark(퀵)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후가공 분야를 제외한 편집 소프트웨어에서부터 CTP, 인쇄기 등 인쇄 전 공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크라우제 CTP

크라우제사는 1988년부터 CTP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9년 아일랜드의 프린테크사에 세계 최초로 상용 CTP를 납품한 회사로 아그파사와 업계 수위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가장 앞선 CTP 제조사답게 그 기술력 또한 뛰어난데 크라우제는 CTP를 제작하는데 있어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해 모든 공

정을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다.



◆ 크라우제의 신문용 CTP LaserStar LS Jet

하지만 크라우제 CTP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헤드의 레이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헤드가 교환된다는 것은 현대의 CTP를 가지고서 야그 및 써멀 그리고 바이올렛 방식 등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 흐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CTP 흐름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는 바이올렛 방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써멀 방식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판재의 가격은 언제든지 변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교환이 가능한 크라우제 CTP의 우수성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데 레이저 교환이 불가능한 CTP는 엄청난 가격의 CTP 장비를 갖추고 나서 판재 가격의 변화에 새로운 방식의 CTP를 구매하는 방법 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하지만 써멀 방식의 CTP를 가진 어떤 회사라도 크라우제를 사용한다면 추후 판재 가격의 변화 추이에 따라 바이올렛 방식의 CTP를 사용하고 싶다면 단 몇 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CTP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회사와 달리 내장 드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장 드럼 방식에서 오는 판 교환 시 필요한 준비 시간을 대폭 줄여 써멀 방식에서도 바이올렛 방식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크라우제의 CTP들은 타사의 CTP들과 비교, 드럼을 쇠가 아닌 돌로 만들기 때문에 드럼 자체가 온도 및 진동에 덜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습도의 경우는 40~60%, 온도의 경우는 18~23°C로 관용도가 높다.

크라우제의 CTP는 이외에도 두개의 이미징 헤드로 시간당 240장(1W2L기준)의 판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신문사용 CTP인 LS202가 있으며, 다양한 운전기에 맞는 자동 Punch/Bending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금년 12월을 기점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Seiken Graphics사와의 인쇄기 공급계약도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주)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는 계기로 작용할 듯 싶다.

향후 종합 인쇄솔루션 공급회사로 커 나가길 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쇄 영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쇄기를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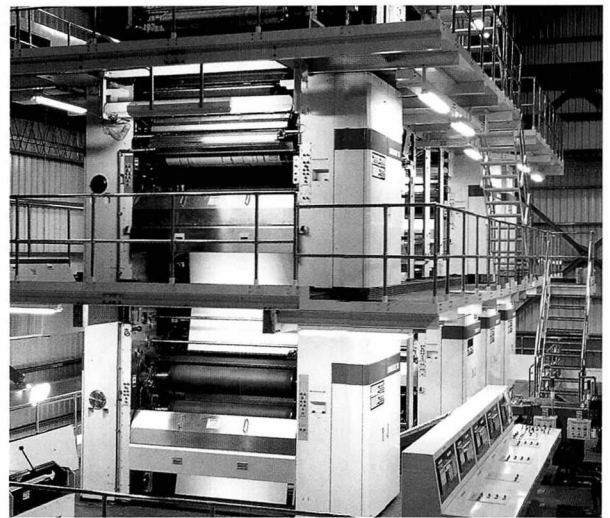
◆ 크라우제의 상업용 CTP인 LaserStar LS 110

신문용 운전기

일본의 인쇄기 제작사인 Seiken Graphics는 특히 신문용 시장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켄의 신문용 운전기는 이미 그 성능을 인정받아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 17개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세이켄에서 공급하는 운전기는 75형, 65형, 55형, 45형 등 총 4종류의 신문용 운전기와 450형 1종류의 상업용 운전기가 있다.



◆ 국내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이켄의 신문용 운전기 Type 75운전기

신문용 운전기에 대해 알아보면 타입75더블-워드 오프셋 신문 운전기는 프레스룸에서 선진 기술을 제공한다. 타입65의 성능을 향상시킨 신문 운전기는 시간당 최고 7만5천장 속도의 양면 공정 컬러 인쇄를 지원한다. 터치 패널 인쇄 기능 제어시스템은 사용의 편리성과 향상된 정확성을 용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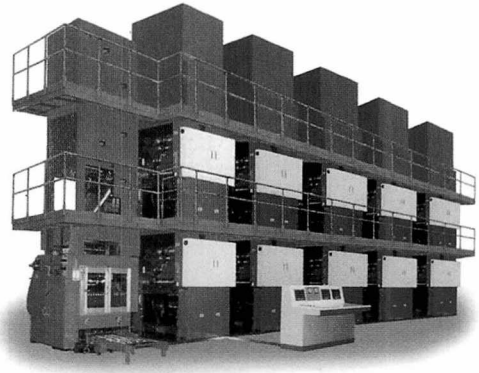
'간단한 것이 최고'라는 개념에 따라, 콤팩트하게 제작된 타입 65 인쇄기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에 비해 효율적인 기능을 장착한 신문 운전기로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했다. 실린더 크기 중앙 드럼의 위성(9 실린더) 유닛은 콤팩트한 유닛 디자인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연혁

- 2000. 7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주) 설립
- 2000. 8 Binuscan/ Fotoware 독점계약 체결
- 2000. 9 매일경제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 9 경향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0 내일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2 조선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2 스포츠조선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2 전자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2 조선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0.12 문화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 2 CMS 소프트웨어 등록 - 제 69330 호
- 2001. 5 CTP 발표회 - 제주 리츠칼튼 호텔
- 2001. 5 머니투데이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 5 경마신문사 CTP장비 DMX HS 및 분공장 전송 시스템 EskoNet 설치
- 2001. 6 벤처 등록 - 신기술개발기업 제2001113442-7222호
- 2001. 8 굿데이뉴스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 8 동아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 9 화광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10 Lucky 필름/판 독점계약 체결
- 2001.10 CMS 소프트웨어 전시회 - 서울 풍전호텔
- 2001.10 동아일보사 필름 출력기 시스템 장비 설치 (김해 분공장)
- 2001.10 동아일보사 분공장 전송 시스템 EskoNet 설치 (본사 및 김해 분공장)
- 2001.11 화광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1.11 CMS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제 20015261 호
- 2002. 1 Esko-Graphics A/S와 독점계약 체결
→ Esko-Graphics는 Purup-Eskofot와 Barco-Graphics의 합병회사임
- 2002. 4 신문제작시스템 발표회 (중국 연대)
- 2002. 4 스포츠서울 시스템 장비 설치
- 2002. 5 동아일보사 분공장 전송 시스템 설치 (대구/광주 분공장)
- 2002. 5 동아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대구/광주 분공장)
- 2002. 5 대한매일신보 시스템 장비 설치
- 2002. 6 ScenicSoft사와 독점계약 체결
- 2002. 7 조선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2. 7 경기일보사 OPI S/W, Color Central 납품
- 2002. 8 Creo사와 독점계약 체결 (ScenicSoft사와 Creo사의 합병)
- 2002.11 동아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충청/오금/안산/제주분공장)
- 2002.12 국방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3. 1 AmberChrom PS판 독점 공급계약체결
- 2003. 1 화광신문사 CMS (컬러 메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납품
- 2003. 2 Esko-Graphic로 부터 "BEST DEALER 2002"상 수상
- 2003. 3 국제 신문사 시스템 장비 설치
- 2003. 3 동아일보사 분공장전송시스템 설치 (충청/오금/안산/제주분공장)
- 2003. 5 일간스포츠 시스템 장비 설치
- 2003. 5 국방일보사 시스템 장비 설치 및 OPI S/W, Color Central 납품

타입55오프셋 운전기는 싱글-워드, 투-플레이트 방식으로 시간당 최고 7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터치패널 기능 제어와 샤프트리스 드라이브 시스템을 모두 장착하고 있다.

타입450오프셋 운전기도 비용에 비해 효율적인 작업성과를 제공해 시간당 최고 5만장의 높은 생산성을 제공한다. 3가지 기본 디자인은 폭이 넓거나 특이한 레이아웃이라도 인쇄가 가능하며 아울러 특별한 컬러 유연성을 보여준다.



◆ 타입450 오프셋운전기. 상업용 운전기로도 활용가능하다.

상업용 운전기로 공급되는 타입450 싱글-워드 운전기는 사실 신문용 운전기이다. 하지만 상업용 운전기로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고품격 인쇄를 재현하며 시간당 최고 5만장의 고속 운영 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세이켄의 SPS(슈퍼파노라마시스템)는 내년도 주력 사업중의 하나로 세이켄이 신문4면을 1장으로 광고가 가능토록 한 세계 최초의 접지술루션이며 이는 신문인쇄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의 특집광고나 이벤트성 광고 등을 특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일본에서는 2개 사가 설치 운행 중에 있다.

세이켄이 운전기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세이켄은 신문 운전에서부터 메일룸 장비까지 공급하는데 메일룸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자랑하고 있다.

인쇄가 더욱 복잡해지고 풀-컬러 작업이 더욱 일반화되면서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 해야 한다. 세이켄은 싱글 그립, 더블 그립 컨베이어, 롤 핸들링 시스템 등 다양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PC쿼크시장 전초기지

충무로에 위치한 '원 비전'은 충무로 지역의 PC쿼크 총괄 판매사 이지만 사실은 국내 PC쿼크 보급의 전초 기지라 할 만하다. 서울시 중구 저동2가 48-27 금풍빌딩 3층에 위치한 '원 비전'에서는 쿼크와 관련된 제반 A/S는 물론 고객 어드바이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고객이 원한다면 스캔 작업부터 출력 작업

까지 퀵과 관련해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애플센터에서 퀵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애플센터의 주 종목은 퀵이 아닌 매킨토시 제품이었기 때문에 '원 비전'이 국내 최초의 퀵센터라 할 만 하다.

'원 비전'을 이끌어 갈 인원들은 단순히 퀵 전문가보다는 총괄 시스템 엔지니어로 꾸려져 퀵 및 출판 편집과 관련된 전 제품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다.

올 8월에 발표된 PC퀵은 아직까지 값비싼 하드웨어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출판사에 크나큰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일보에서는 편집 시스템 전체를 매킨토시가 아닌 PC로 바꿔, 취재 파트와 편집 파트의 시스템을 동일시 해 큰 효과를 보고 있어서 향후에도 출판 및 편집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굳혀나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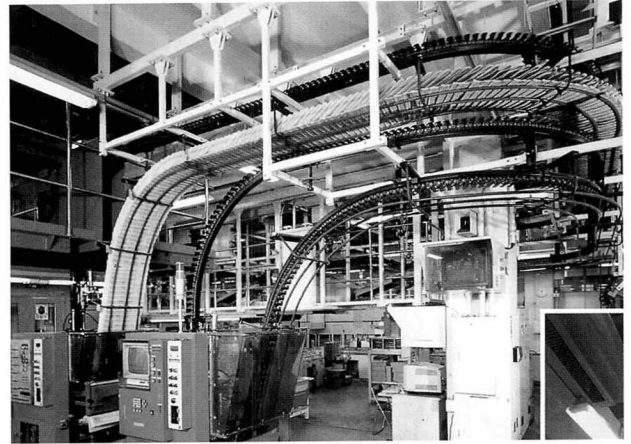
신문용 시장 발판으로 상업용 시장 진입할 것

시스템테크놀로지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신문시장에서 확보한 위치이다.

인쇄기나 CTP의 경우가 특히 그러한데 그런 장점은 상업용 시장에 진입하는 데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준우 대표는 "일단은 영업문화가 신문사 쪽과 일반 상업용

시장이 약간 다르다.



◆ 세이켄의 신문전송시스템

특히 크라우제 같은 경우는 정말이지 훌륭한 CTP인데 기존에 크라우제가 아시아 시장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상업용 시장에서는 신문용 시장에서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쉬운 점이다. 명성보다는 고객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수한 장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갑신년 새해. 인쇄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주)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용우 기자>

종이상식

종이의 치수

전지(全紙) 치수는 규격 치수와 규격의 치수가 있다. 규격 치수로는 A열 전지와 B열 전지가 있고 규격의 용지도 있으나, 역시 일반 인쇄물에 사용되는 것은 규격 치수이다.

치수의 번호가 1, 2, 3으로 하나씩 나아감에 따라 면적이 반으로 된다. 보통 0의 크기를 전지배판, 1의 크기를 전판, 2를 반절내기, 3을 4절내기, 4를 8절내기, 5를 16절 내기 등으로 부르고 있다.

A판과 B판을 비교하면 B판 쪽이 크고, 면적으로는 B판이 A판의 약 1.5배가 된다. A판과 B판을 큰 편부터 늘어놓으면, B0 > A0 > B1 > A1 > B2 > A2로 된다.

종이를 셀 때의 최저 단위는 물론 '장'이지만, 인쇄용지의 단위로는 '연'을 사용한다. 연이란 종이 전지 500장을 말하고, R로도 표시한다.

다만 이것은 비교적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그다지 대량으로 쓸 필요가 없는 종이는 장 또는 '포'로 세는 수도 있다.

연은 종이의 두께를 표시하는 데도 깊은 관계가 있다. 종이의 두께는 kg으로 표현되지만, 이것은 1연에 몇 kg인가하는 식으로 두께를 표현하고 있다. 즉, 같은 품목으로서 같은 판형의 종이라면, 무거운 쪽이 종이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A판과 B판의 종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두께의 종이라고 표시한 kg 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된다. 보통의 도서를 예로 들면, A판의 40kg 전후의 종이 사용되는 수가 많다. 이것을 B판으로 고치면 약 60kg으로 된다. 따라서 종이의 두께를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무슨 판의 몇 kg의 종이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재생지

재생지는 인쇄되고 소비된 다음 폐기할 종이에 인쇄잉크와 나머지 불순물을 제거하여 종이원료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의식수준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업PR 차원에서 재생지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지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지사들도 없고 소비되고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주문식으로 생산되어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불순물이 원지보다 다량 함유되어 있고 순수펄프에서 생산된 원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잉크의 뒤묻음이 심하여 속도를 내기 힘들고 건조제를 첨가하여 인쇄해야 한다. 재생하는 과정에서 펄프의 질이 낮아져 종이자체에 무채색계열의 색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과정에서 색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평활도도 낮아 종이표면이 거칠어 잉크의 흡수도 고르지 못하다. 간혹 작은 글씨의 경우에는 가로획의 잉크가 종이에 고르게 묻지 않아 읽기가 곤란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정교한 디자인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쇄하고 나면 인쇄색의 채도가 심하게 낮아 색을 나타내는 인쇄물, 특히 4원색의 인쇄물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2도로 인쇄한다거나 한정된 수량만 인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지보다 종이의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인쇄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점점 재생지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100%재생지는 거의 수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